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Korea Press Ethics Commission

1. 미성년피의자 신원 보호

▲ 2011-1269 신문윤리강령 위반

1. 경향신문 발행인 송 영 승
2. 국민일보 발행인 조 용 기
3. 東亞日報 발행인 김 재 호
4. 세계일보 발행인 유 종 관

〈주문〉

경향신문 2011년 11월 29일자 11면 「소년 재소자들, 철창 너머 부른 꿈의 노래」 제목의 관련 사진, 국민일보 11월 29일자 25면 「소년 재소자 합창단, 교도소 밖서 '감동의 하모니' 이승철씨 지휘」 제목의 관련 사진, 東亞日報 11월 29일자 A27면 「소년범 18명, 눈물로 부른 '속죄의 고백」 제목의 관련 사진, 세계일보 11월 29일자 25면 「“우리들도 꿈이 있어요”...영화 ‘하모니’ 현실로」 제목의 관련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소년 재소자 합창단, 교도소 밖서 '감동의 하모니' 이승철씨 지휘

김천소년교도소 수감자 18명으로 구성된 합창단이 교도소 밖 무대에 28일 처음으로 올랐다. 여성 수감자들이 합창을 통해 교화되는 영화 '하모니'의 감동이 재연됐다.

가수 이승철씨의 지휘 아래 이날 오후 경북 김천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천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무대에서 이들은 여느 합창단과 다름없이 나

비넥타이에 짙은 색 정장을 차려 입고 '드림스 캐치 사랑콘서트'를 펼쳤다. '도라지꽃' '겨워 의 꿈'을 합창하자 관중들은 큰 박수를 보냈다.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수감자들은 원칙적으로 형기 중에 교도소를 벗어날 수 없으나 이씨의 요청을 관재진 법무부 장관이 받아들여면서 공연이 성사됐다. 이씨는 재능



가수 이승철씨(왼쪽 두 번째)가 28일 경북 김천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드림스캐치 사랑콘서트'에서 김천소년교도소 합창단원들과 함께 공연을 하고 있다. 교도소 수감자는 원칙적으로 얼굴을 공개할 수 없으나 주최 측은 교정당국과 합창단원의 허가를 받아 얼굴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기부 차원에서 지난 9월부터 매주 수요일 교도소를 방문해 합창 수업을 했다.

이씨는 배우 공현주씨 등 국제적 나눔 활동을 꾸준히 펼친 22명과 함께 보건의복지부 '이달의 나눔인'으로 선정됐다. 복지부는 29일 시상식과 함께 이들에게 장관상을 수여한다. 김천=김재산 기자 jskimkb@kmb.co.kr

〈국민일보 2011년 11월 29일 25면〉

〈이유〉

위 신문들은 지난 11월 28일 가수 이승철 씨가 경북 김천시문화예술회관에서 김천소년교도소 합창단원과 함께 연 공연사진을 게재했다. 신문들은 '교도소 수감자의 얼굴은 원칙적으로 공개할 수 없으나 교정당국과 합창단원의 허락을 받아 공개했다'는 취지로 사진설명을 달았다.

하지만 이들 합창단원은 평범한 수감자가 아니라 제목에서 밝힌 것처럼 〈소년재소자〉, 곧 소년교도소 수감자들이다. 김천소년교도소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을 만 24세까지 수용하는 시설이므로 이들 합창단원 중에는 미성년 수감자(만18세 이하)도 있을 수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미성년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사진 및 기타 신원 자료를 밝히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록 교정당국과 당사자들의 허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들 신문은 미성년 재소자의 얼굴이 공개된다는 점에서, 이들의 인권 보호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마땅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하지 않았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③항(미성년피의자 신원 보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 자살 보도의 신중

▲ 2011-1100 신문윤리강령 위반

서울신문 발행인 이 동 화

〈주문〉

서울신문 2011년 4월 16일자 9면 「어느 서울대 졸업생의 안타까운 자살/고스펙/뽕스펙/끝내…」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서울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지난달 31일 오후 경기도의 한 종합버스터미널, 봄바람이 살랑살랑, 맑은 봄날이었다. 서울대를 졸업한 한 취업준비생이 무작정 경북 상주행 버스에 몸을 실었다.

상주는 그와 아무런 연고가 없는 곳,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곳이었다. 또 그가 터미널에 도착한 시각, 상주행이 가장 먼저 출발하는 하행 버스였던 것도 한 이유였다. 3시간 남짓 걸려 상주에 도착했다. 잠시 둘러보지도 않고 곧장 길 건너 숙박업소로 향했다. 종이를 꺼내 유서를 써내려갔다. “이런 제 모습에 적응이 안 돼요.” 눈물이 났다. “부모님 기대에 못 미쳐 정말 죄송해요.” 부모님, 여동생, 친구들 모두에게 미안했다. 그럼에도, 마음을 돌릴 수 없었다. 지옥 같았던 지난 1년을 다시 견딜 수 없었다.

카이스트 학생들의 잇따른 자살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가운데 한 서울대 졸업생의 취업비관 자살이 뒤늦게 알려졌다. 흔히 말하는 고(高)스펙이었고, 집안도 넉넉했다. 동아리 회장을 할 만큼 사교적인 성격이었다. 하지만, 취업의 문을 넘지 못해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전문가들은 “서울대생을 바라보는 주변의 기대나 시선에 대한 압박감이 원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중략)

결국, 이씨는 아무 연고도 없는 객지에서 미리 사둔 빨랫줄에 목을 매 스스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부모와 여동생에게 A4 용지 2장 분량의 유서를 남겼다. 부모에게는 “자신의 이런 모습이 적응이 안 된다. 부모님의 기대에 미치지 않아 죄송하다.”, 또 동생에게는 “착실히 살아야 한다.” 등 유서 대부분이 신병을 비판하는 글이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씨의 한 후배는 “최근까지도 한 대기업에서 인턴을 하는 등 취업하려고 애썼는데 취업이 안 돼 우울증을 앓아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중략)

강선보 고려대 교육대학원 원장도 “흔히 대한민국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불리는 서울대생도 신병비관으로 자살을 한다면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죽어야 한다는 것이겠지만 이는 그만큼 우리 교육과정에서 위기극복 능력 배양에 힘쓰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가정이나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일부러라도 상황을 조성해서라도 위기

극복능력을 키워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신문은 위 기사에서 한 서울대 졸업생이 외무고시와 취업시험에 실패한 뒤 낯선 지방의 숙박업소에 찾아들어 자살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매우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기사의 편집도 한 면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의 크기에 대형 그래픽을 곁들여 돋보이게 하였다.

이 사건이 비록 극심한 취업난과 경쟁 위주 체제의 우리 사회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 주었고 이에 대한 다양한 처방을 기사에 반영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같은 과대 편집은 <자살 사건> 보도의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있다.

‘언어적 표현이 자살의 전염력을 높일 수 있으며, 자살 보도 자체가 자살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한국기자협회 「자살보도 권고 기준」)에서 자살 보도는 기사 내용과 제목, 편집에서 매우 신중해야 한다.

따라서 위 기사는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모방 자살의 충동을 느끼게 만들 수 있고 나아가 자살의 부도덕성과 자살에 대한 경계심을 약화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④항(자살 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1-1123 신문윤리강령 위반

1. 경향신문 발행인 송 영 승
2. 서울신문 발행인 이 동 화
3. 朝鮮日報 발행인 변 용 식
4. 한겨레 발행인 양 상 우

〈주문〉

경향신문 2011년 5월 10일자 8면 「“집이 되기 싫다” 목숨 끊은 노부부」 기

사와 제목, 서울신문 5월 10일자 8면 「“병수발 힘들까봐…” 어버이날 60대 노부부 동반자살」 기사와 제목, 朝鮮日報 5월 10일자 A8면 「“너희에게 짐 되는 것 같아…/그동안 정말 고맙다, 아버지와 나는 먼저 가마”」 기사와 제목, 한겨레 5월 10일자 12면 「자식한테 뭐가 미안했기에…노부부 자살」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이유〉

1. 위 4개 신문은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경향신문)=『“고맙다. 미안하다. 하나만 남으면 너희에게 짐이 될 것이다.”

치매(남편)와 암투병(부인)에 시달리던 노부부가 어버이날에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다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 8일 오후 5시 30분쯤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전모(69)·노모(62)씨 부부가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함께 사는 아들 부부와 손자를 제주도로 여행을 보낸 뒤 한날, 한시, 같은 장소에서 세상을 떠났다.

아들은 여행지에서 아파트 경비원을 통해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황급히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부모가 자살한 이유를 알고서는 한없이 통곡했다.

경찰에 따르면 평소 지병을 앓던 전 씨 부부는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들은 경찰에서 “여행지에 도착하자마자 집에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아 이상한 생각이 들어 아파트 경비원에게 집에 가보라고 해서 확인한 결과 이런 참담한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아들은 “여행을 가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라면서 가슴을 쳤다.

숨진 전 씨는 서울의 명문 고교와 법대 출신으로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하지만 전 씨는 법조인이 되지 못한 자신의 삶을 비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인지 30년 전부터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 지난해부터는 중증 노인성 치매까지 앓기 시작했다. 물론 아들 내외와 손자들이 전 씨 부부를 돌봤다.

하지만 이들이 직장과 학교에 가 있는 동안 거동이 불편하고 대소변조차 가

리지 못하는 남편을 간호하는 것은 부인 노 씨의 몫이었다. 그러나 병수발을 들며 정성스레 남편을 간호하던 노 씨도 세월의 무게를 견디지는 못했다.

부인 노 씨에게 암세포가 스며들었고, 7개월 전에 유방암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에도 치료를 받아야 했다. 우울증세까지 보여 점점 남편의 병수발을 하기 힘들 만큼 건강이 악화됐다. 결국 전 씨 부부는 함께 살던 아들 식구들을 지난 7일 제주도로 여행을 보냈다. 그런 뒤 다음날인 8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전씨 부부는 아들과 며느리, 손자들 그리고 자신의 형제들에게 모두 5장의 유서를 남겼다. 아들에게는 ‘고맙다. 미안하다. 아버지, 엄마 두 사람이 같이 죽어야지, 누구라도 하나가 남으면 너희에게 짐이 될 것이다’, 며느리에게는 ‘고맙고 미안하다. 아들들 잘 키워라’는 내용이었다. 손자들에게는 ‘엄마 아빠와 행복해라. 사랑한다’고 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규명한 후 시신을 유족에게 인계할 방침이다.』

(서울신문)=『지병을 앓던 60대 부부가 어버이날에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9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5시 30분쯤 경기 용인시 신봉동의 한 아파트에서 전모(69) 씨와 부인 노모(62) 씨가 숨져 있는 것을 경비원이 발견했다.

남편 전 씨는 침실에서 누워 숨진 채 발견됐는데, 목에는 졸린 흔적이 남아 있었고 부인 노 씨는 베란다에서 목을 맨 채 질식사했다.

목격자 경비원은 “함께 살고 있는 큰아들로부터 ‘집에 계신 부모님들이 전화를 받지 않고 있으니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확인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집안에 들어가 보니 두 사람이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

전 씨 부부는 함께 사는 아들 부부에게 “그동안 우리를 돌보느라 고생이 많았다.”는 말과 함께 지난 7일 제주도로 3박 4일 동안 여행을 권한 뒤 둘이서 집을 지키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

회사원인 큰아들(40), 맞벌이하는 며느리(38), 초등학교에 다니는 손자 2명과 함께 노년의 삶을 살던 이들에게 불행은 젊은 시절부터 암울하게 드리워져

있었다.

전 씨는 서울의 명문 고교와 명문대 법대 출신으로 엘리트 코스를 밟아 왔다. 그러나 그 무렵부터 극심한 스트레스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하나 둘씩 법조인이 돼 활동하는 학교 친구들과 달리 법조인의 길을 걷지 못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어려웠다. 못한 자신의 처지를 괴로워한 전 씨의 스트레스는 더욱 심해졌고, 급기야 지난해부터는 중증 노인성 치매까지 앓았다.

이 때문에 큰아들 내외와 손자들이 직장과 학교에 가 있는 동안 거동이 불편해 대·소변조차 가리지 못하는 남편에 대한 간호는 함께 늙어 가는 부인 노 씨의 몫이었다. 노 씨는 꿈도 많았겠지만 특별히 싫은 내색도 하지 않고 반평생 남편의 병수발을 도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힘겹게 남편을 간호하던 노 씨도 세월의 무게는 견디지 못했다. 암 세포가 몸으로 스며든 노씨는 7개월 전 암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에도 노 씨는 통원 치료를 받아야 했고 우울 증세까지 보여 점점 남편의 병수발을 하기 힘들 만큼 건강이 악화됐다.

결국 노 씨는 함께 살던 아들 식구들을 모두 여행 보내고, 비극적인 종말을 선택하고 말았다. 이들 부부는 아들과 며느리, 손자들, 형제들에게 유서 5장을 남겼다.

아들에게는 ‘고맙다. 미안하다. 아버지와 엄마가 함께 죽어야지 어느 하나만 죽으면 너희에게 짐이 될 것이다.’, 며느리에게는 ‘고맙고 미안하다. 아이들 잘 키워라.’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손자들에게는 ‘엄마, 아빠와 행복해라. 그리고 사랑한다.’, 형제들에게는 ‘우리 큰아들 내외가 많은 고생을 했는데 잘 도와줘라.’라는 글로 마지막 인사를 했다.

전씨의 큰아들은 경찰에서 “여행을 안 갔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괜히 가서…”라고 흐느끼며 말을 잇지 못했다.

경찰은 유족들의 진술과 유서 내용을 토대로 부인 노 씨가 남편 전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자신도 자살한 것으로 추정했다. 장충식 기자·연합뉴스』

(朝鮮日報)=『“폐를 끼쳐 미안하다. 너희에게 짐이 되는 것 같다. 우리가 가

면 더 행복하게 살 것 아니냐. 그동안 정말 고맙다.”

어버이날인 지난 8일 치매와 암을 각각 앓던 60대 노부부가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 부부는 어버이날 황금연휴를 맞아 함께 살던 아들 부부와 손자들이 제주도로 여행을 떠난 사이 목숨을 끊었다.

8일 오후 5시 30분쯤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의 한 아파트에서 전모(69)·노모(62)씨 부부가 숨져 있는 것을 경비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아내 노 씨는 베란다 천장에 목을 매 숨져 있었으며, 남편 전 씨는 침실 바닥에 숨진 채 누워 있었고 목이 졸린 흔적이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노 씨가 자필로 아들과 며느리, 손자들 앞으로 각각 쓴 유서 5장이 발견됐다.

유서에는 “고맙다. 미안하다. 아버지, 엄마가 같이 죽어야지 어느 하나만 죽으면 짐이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겨레)=『“모두에게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몇년 동안 중증 치매와 암을 앓아오던 60대 노부부가 자식들에게 ‘더는 짐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어버이날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기도 용인서부경찰서는 “어버이날인 지난 8일 오후 5시 30분께 용인시 신봉동의 한 아파트에서 전아무개(69)씨와 노아무개(62·여)씨 부부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경비원이 발견해 조사중”이라고 9일 밝혔다. 전 씨는 침실에서, 노 씨는 아파트 발코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을 발견한 경비원은 “노부부와 함께 사는 아들이 ‘집에서 전화를 안 받으니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확인해 달라’고 해 집에 들어가 보니 두 노인이 숨져 있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노부부는 함께 살던 아들(40·회사원) 내외와 손자 두명을 지난 7일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서울의 이른바 명문고와 명문대 법대를 졸업한 전 씨는 몇 년 전부터 정신질환을 앓다 지난해부터 중증 치매까지 겹쳤고, 부인 노 씨와 가족들의 극진한 보살핌을 받아왔다. 그러나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할 만큼 병세가 악화된 남편을 돌보던 노 씨도 지난해 중반부터 암세포가 번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급기야 온몸으로 퍼지기 시작한 암 조직을 제거하기 위해 노씨는 7개월 전 암 수술을 받았다. 그 뒤에도 남편의 병시중을 해왔다. 힘겨운 투병생활은 노부부의 삶을 지치게 만들었고, 시름에 빠진 노씨는 결국 모진 선택을 하게 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노부부는 징검다리 연휴를 맞은 가족들에게 모처럼 훌가분한 여행을 권해 떠나보낸 이튿날 병마로 지친 여생을 마감했다.

5장에 이르는 유서에서 이들 노부부는 아들에게는 “고맙다. 미안하다. 아버지, 엄마가 같이 죽어야지, 어느 하나만 죽으면 짐이 될 것이다”라고 썼고, 며느리에게는 “고맙고 미안하다. 아들들 잘 키워라”라고 적었다. 초등학교생인 손자들에게는 “엄마, 아빠와 행복해라. 사랑한다”고 쓴 뒤, 형제들에게는 “우리 자식들 고생했는데 잘 도와달라”며 마지막 인사를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서를 상세히 공개할 수는 없지만, 장문의 유서에는 자식들에 대한 사랑과 걱정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며 “부모와 자식 사이를 한 번 더 돌아보게 하는 사건인 것 같다”고 안타까워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신문들은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에 발생한 노부부 자살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경향신문·서울신문·한겨레는 사회면 머릿기사로 다루었고, 朝鮮日報는 사회면 3단으로 다루었으나 유서 내용 중 세 문장을 그대로 제목으로 직접 인용하는 감성적 편집을 하였다.

이 노부부 자살 사건은 어버이날에 발생함으로써 뉴스로서 시의성이 있고, 자식의 집에서 노부부가 함께 병치레로 힘들게 살았던 사실은 독자들의 심금을 울리는 바가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확대 편집과 감성적인 제목 달기는 자살의 전염력을 높여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에게 또 다른 자살의 계기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신문윤리강령과 한국기자협회 「자살보도 권고 기준」은

자살 보도에 관한 기사 내용과 제목, 편집을 매우 신중하게 다루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기사는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모방 자살 충동을 느끼게 하고 자살의 부도덕성과 자살에 대한 경계심을 약화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④항(자살 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1-1147 신문윤리강령 위반

1. 스포츠경향 발행인 송 영 승
2. 스포츠동아 발행인 송 대 근
3. 스포츠서울 발행인 정 상 태
4. 스포츠조선 발행인 남 상 균
5. 일간스포츠 발행인 정 경 문

〈주문〉

스포츠경향 5월 24일자 1면 「송지선 자살암시 16일만에 투신/네티즌 “악플이 죽였다”/쇼크 임태훈 연락 끊겨」 제목, 3면 「임태훈과 ‘열애공방’/하루만에 극단선택」 제목과 기사 · 「두산 “안타깝지만 개인사일 뿐”」 제목과 기사, 스포츠동아 5월 24일자 1면 「송지선 아나 자살 왜?/투신 전 최후의 글 무슨 내용이었기에」 제목과 기사, 2면 「스캔들? 징계 스트레스? 우울증?...3색 미스터리」 제목과 기사, 3면 「“다...놓아버리기”...투신 전 트위터에 자살 암시」 제목과 기사, 스포츠서울 5월 24일자 1면 「충격! 송지선 투신 자살 왜」 제목, 27면 「임태훈 ‘교제사실’ 부인에 충격?」 제목과 기사, 스포츠조선 5월 24일자 1면 「“오빠, 나 이제 어디로 가지...”/송지선, 본지 기자 올린 ‘마지막 문자」 제목과 기사, 2면 「“태훈이와 사귀다고 말하면 어떨까?”」 제목과 기사 · 「어머니 전화 받으러 간 사이 투신」 제목과 기사, 3면 「본지 정해욱 기자, 송지선과의 ‘마지막 통화내용’/“곧 정리될 줄 알았는데...좋게 좀 써주세요”」 제목과

기사·「임태훈 “연인 아니다” 반박 주장에 자괴감 느낀 듯」 제목과 기사, 4면 「임태훈, 사고소식 듣고 충격…정상 등판 힘들어」 제목과 기사, 27면 「생일 닷새 앞두고…더 안타까운 ‘서른의 삶’」 제목과 기사, 일간스포츠 5월 24일자 1면 「‘야구소녀’를 누가…」 제목과 기사, 2면 「①우울증 ②열애설 갈등 ③사생활 노출…SNS비극」 제목과 기사·「어머니 휴대전화 들고 화장실 간 사이 오피스텔 19층서 투신」 제목과 기사, 3면 「무서워 못 뛰어 내리겠다더니…‘야구여신’ 비극」 제목과 기사에 대하여 각각 ‘경고’ 한다.

〈이유〉

1. 위 5개 신문은 적시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스포츠경향)〈임태훈과 ‘열애공방’/…〉=『야구선수 임태훈과 열애설 공방에 휩싸였던 MBC 스포츠 플러스의 송지선(30) 아나운서가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해 충격을 주고 있다.

송지선은 23일 오후 1시 46분께 자신의 자택인 서울 서초동 모 오피스텔에서 투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가 인근 서울성모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을 거뒀다.

송 씨의 어머니는 지난 7일 송 씨가 트위터에 자살 암시 글을 올린 후 줄곧 송 씨와 함께 생활해왔지만 사고 당시에는 전화를 받기 위해 화장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송씨는 지하 주차장 입구를 덮고 있던 가림막위에 한 차례 떨어졌다가 가림막이 무너지면서 주차장 바닥으로 추락했다.(후략)』

*이하 기사 생략

(스포츠동아)〈스캔들? 징계 스트레스? 우울증?…/잠옷입고 이불감싼 채…〉=『(전략) 송지선 아나운서는 이날 오후 1시 43분께 자신이 살고 있던 서울 서초동의 25층짜리 오피스텔 19층에서 뛰어내려 그 자리에서 숨졌다. 당시 현장을 처음 목격한 오피스텔 경비원은 경찰 진술에서 “천둥처럼 ‘쿵’ 하는 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주차장 입구에 사람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었다”고 말했다.

송 아나운서는 자신의 오피스텔 뒷창문을 연 뒤 입고 있던 잠옷 위로 이불을 감싼 채 뛰어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그의 집 뒷창문은 한 사람이 겨우 빠져 나갈 정도의 작은 크기였다. 사건 현장은 참혹했다. 지하주차장 입구 위를 덮고 있던 반투명 슬레이트(플라스틱 막)는 이중으로 되어 있었음에도 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50cm 정도 깨져 있었다. 슬레이트를 받치고 있던 철골도 종이처럼 구겨졌다.

현장에 모여 있던 주민들은 “가스가 폭발하는 소리 같기도 했고, 세상에 이렇게 큰소리는 처음 들었다. 너무 큰소리에 놀라 나와 보니 처참한 상황이 벌어져 있었다”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후략)』

*이하 기사 생략

(스포츠서울)〈임태훈 ‘교제사실’ 부인에…〉=『(전략)송 아나운서의 지인에 따르면 지난 주말 송 아나운서와 두산 베어스 임태훈의 가족측이 만나 사태 해결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두 사람이 더 이상 다치기 전에 사귀는게 맞다고 인정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오갔다는 것. 그래서인지 고인은 21일 트위터에 “조만간 다 밝히겠다”고 남긴데 이어 22일 모 매체와 인터뷰에서 “임태훈과 1년반째 연애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같은 날 1군에 복귀한 임태훈은 구단을 통해 교제사실을 부인했고 하루 뒤인 23일 송지선은 다시 못 올 길을 떠났다.(후략)』

*이하 기사 생략

(스포츠조선)〈“오빠, 나 이제 어디로…”〉=『갑작스럽게 투신자살해 세상을 슬픔과 충격으로 몰아넣은 송지선 아나운서가 자살 3일전 평소 친분이 두터웠던 스포츠조선 기자와 문자대화를 통해 자신의 절박한 심정을 밝혔다. 송 아나운서는 지난 20일 오후 스포츠조선 이원만 기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나 이제 어디로 가야해… 막막하기도 하고…”라며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하소연했고, “그(임태훈)와 사귄다고 말하면 어떨까”라고 문의하기도 했다. 벼랑 끝에 몰려 마지막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절절한 심정이 배 있는 그녀의 마지

막 문자 메시지였다.』

*이하 기사 생략



〈스포츠조선 2011년 7월 11일자 1면〉

(일간스포츠)〈어머니 휴대전화 들고...〉=『▲자살 어떻게/송지선(30) MBC 스포츠플러스 아나운서가 23일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 충격을 주고 있다.

송 아나운서는 23일 오후 1시 43분께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자택 19층 오피스텔에서 투신자살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후송, 오후 3시께 서울 도곡동에 위치한 강남 세브란스 병원 영안실에 안치됐다.

서울서초경찰서 광정기 형사과장은 23일 오후 6시 30분께 서초경찰서 사회의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현재까지 조사결과로는 자살로 추정된다”며 “사고가 발생할 당시 송 아나운서의 어머니가 오피스텔에 함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송 아나운서 어머니가 잠시 전화통화를 위해 휴대전화를 들고 화장실로 간 사이에 송 아나운서가 창문을 열고 아래로 뛰어내린 것으로 드러났

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은 “유서가 있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유서는 남아있지 않았다. 현재 송 아나운서가 쓰던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고 디지털수사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부검 여부는 유족들과 상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며 우울증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현재 송 아나운서의 어머니도 오열하다 실신해 영동 세브란스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송 아나운서는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투수 임태훈 선수와 교체 여부를 놓고 인터넷 상의 루머에 휩싸여 곤욕을 치렀다.』

*이하 기사 생략

2. 위 기사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신문들은 ‘스포츠·연예 신문’이라는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지난 5월 23일 발생한 송지선 아나운서의 투신자살 소식을 지나치게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한결같이 1면의 머릿기사나 1면 제목으로 다루고 다른 지면에 속보를 게재했다.

위 신문들은 자살동기, 자살과정, 주변 이야기, 빈소 상황, 경찰 수사 등에 대해 서 시시콜콜히 상세하게 보도했다. 스포츠조선은 송 아나운서가 자살하기 전 소속 기자와 주고받은 편지내용을 중심으로 1면·2면·3면·4면·27면 등 무려 5개 면에 걸쳐 이 소식을 다루기도 했다.

비록 송지선 아나운서가 유명 방송인이었다는 점에서 대중의 관심이 큰 소식이라고는 하지만, 이 같은 확대 편집과 자극적인 제목 달기는 자살의 전염력을 높여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에게 또 다시 자살의 계기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신문윤리강령과 한국기자협회 「자살보도 권고 기준」은 자살 보도에 관한 기사 내용과 제목, 편집을 매우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나치게 선정적이고 흥미 위주로 다룬 위 기사들은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모방 자살의 충동을 느끼게 만들고 자살의 부도덕성과 자살에 대한

경계심을 약화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 「범죄보도와 인권 존중」 ④항(자살 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1-1148 신문윤리강령 위반
매일경제 발행인 장 대 환**

〈주문〉

매일경제 2011년 5월 24일자 A31면 「송지선 아나운서 투신 자살/SNS폭력'이 저지른 살인」 기사와 제목, 6월 3일자 A31면 「“취직이 안 돼 놀아서 어머니에게 죄송”/처지비관 남녀4명 동반자살」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매일경제는 위 적시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5월 24일〉=『자살했지만 ‘자살’은 아니었다.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없었지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만들어낸 거대한 루머의 소용돌이(Spiral)가 30대 여성 방송인을 죽음으로 몰아갔다.

프로야구 두산 베어스 투수 임태훈 씨(23)와 열애설을 두고 누리꾼에게 ‘과도한’ 관심을 받아온 송지선 MBC 스포츠플러스 아나운서(30)가 23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6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25층짜리 오피스텔 건물 앞에 송 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경비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119구조대가 송 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출동 당시 이 오피스텔 19층 송씨 집 창문이 열려 있었던 점으로 미뤄 송 씨가 스스로 뛰어내려 숨진 것으로 보고 유족 등을 상대로 자살 동기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송 씨는 이달 초 임씨와 열애 사실을 인정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지만 임 씨는 이를 부인했다. 그러자 지난 7일 송 씨 미니홈피에 그와 임씨의 관계를 상세하게 묘사한 글이 올라왔고 이 글은 캡처돼 삼시간에 인터넷 공간으로 퍼져 나갔다.

송씨는 미니홈피에 올라온 글을 삭제하고 트위터를 통해 문제의 글은 자신이 올리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미니홈피에는 그를 비방하거나 심지어 욕설까지 내뱉는 댓글 수백 개가 순식간에 달렸다.

송씨의 죽음은 예전 인터넷 악플과 네티즌 마녀사냥에 희생양이 됐던 유명인들 사례와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후략)』

〈6월 3일자〉=『평소 직업이 없는 처지를 비관해 오던 20·30대 남녀 4명이 연탄불을 피운 채 동반자살을 선택했다.

2일 오후 1시 30분께 성주군 금수면 대가천변에 주차된 승합차량 안에서 김 모씨(26) 등 남자 2명과 박모 씨(25·여·서울) 등 여자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인근에 놀러온 이모 씨(24)가 차량 안에 인기척 없이 누워 있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해 발견됐다.

경찰은 차량 안에서 타고 남은 연탄재 3장과 연탄 6개, 번개탄 7개 등이 있었고, 차량 창문이 테이프로 봉해져 있는 점 등으로 미뤄 차량 안에서 연탄을 피워 놓고 동반 자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차량 안에서 발견된 이들은 가방 안에 유서 형식 편지와 신분증을 넣어뒀다.

박씨는 유서에서 “취직이 안 돼 놀아서 어머니에게 죄송하다. 하지만 죽는 게 죄스럽지 않고 그동안 고마웠다”는 내용으로 신변을 정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모두 무직이었으며 지난달 30일 자살 사이트에서 만나 서로 자기 신세를 한탄하며 취업 고민을 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 1일 대전에서 함께 만나 승합차량을 빌려 타고 김천에서 연탄을 구입한 후 인적이 드문 이곳을 자살 장소로 선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종근 성주경찰서 수사과장은 “이들이 함께 마음을 먹고 경기도 강원도 등 인적이 드문 장소를 찾은 흔적이 자살 사이트에 남아 있었다”며 “숨진 사람들이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등 자세한 사망 경위를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매일경제는 지난 5월 23일 발생한 송지선 아나운서의 투신 자살 소식을 사회면 머릿기사로 크게 보도한 데 이어 열흘 뒤에 발생한 남녀 4명 동반자살 사건 역시 사회면 머릿기사로 대서특필했다.

송지선 아나운서가 유명한 방송인이어서 그의 사망소식에 대중의 관심이 크고, 직업이 없는 젊은 남녀 4명의 동반자살 역시 청년실업이라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매일경제가 이처럼 번번이 자살사건에 대해 확대 편집을 하는 것은 사회적 공기인 언론매체로서 바람직한 태도라 하기 어렵다. 특히 자살방법을 묘사한 ‘투신자살’을 제목으로 뽑거나 구체적으로 ‘연탄불을 피운 채 동반자살을 선택했다’는 내용은 자살의 전염력을 높여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에게 문제 해결 의지보다 또 다시 자살의 계기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신문윤리강령과 한국기자협회 「자살보도 권고 기준」은 자살 보도에 관한 기사 내용과 제목, 편집을 매우 신중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매일경제의 편집경향은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모방 자살 충동을 느끼게 만들고 나아가 자살의 부도덕성과 자살에 대한 경계심을 약화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④항(자살 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1-1289 신문윤리강령 위반
스포츠서울 발행인 김 준 목

〈주문〉

스포츠서울 2011년 12월 9일자 19면 · 12월 13일자 23면 김세영 성인극화 「갬블파티」(그림 강영환) 452화, 455화에 대하여 ‘경고’ 한다.

〈이유〉

위 만화는 한 도박전문 조직의 조직원들이 조직을 배신했다 해서 그들에게 조직 두목의 자살 지시를 중간연락책이 전달하고, 결국 배신 조직원들이 자살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다. 452화에서 중간연락책은 “보스께서는 세 분 사장님들께 조용한 죽음을 명하셨습니다” “조직에 민폐가 되지 않는 조용한 죽음!!” “누가 봐도 자살로 보이는 평범한 자살!!” “약간의 수면제와 한번의 투신!!” “한희봉 사장님은 한강!!” “석철 사장님은 낙동강!!” “송대방 사장님은 태종대 자살바위!!” 등의 지시를 통보한다.

또 455화에서는 한 연락 조직원이 조직두목의 지시에 따라 배신 조직원을 강의 다리 위까지 차로 데려다 주고 이 배신 조직원이 다리 난간을 넘어 강물로 뛰어내리는 장면을 그림으로 묘사하고 있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물론, 많은 사회단체들은 ‘자살보도는 그 자체가 다른 자살을 부를 우려가 있다’는 취지에서 언론이 자살문제를 매우 신중하게 다루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극화는 자살 강요 내용과 그 방법에 대해 마치 게임을 설명하듯이 상세하게 표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인명 경시 풍조를 조장하고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④항(자살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2-1018 신문윤리강령 위반

1.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2. 헤럴드경제 발행인 유 병 창

〈주문〉

문화일보 2012년 2월 1일자 9면 「우울증 앓던 교수 부인 6·7세 자녀와 동반자살」 기사와 제목, 헤럴드경제 2월 1일자 10면 「대학교수 일가족 동반자살…대체 무슨 일이?」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문화일보와 헤럴드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문화일보)=『수년간 우울증을 앓던 현직 대학교수의 아내가 번개탄을 피워 어린 자녀들과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어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연예인을 포함한 여론형성층 내지는 사회지도층 사이에서 공황장애나 우울증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어린 아이들까지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사회적 관심과 주변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1일 오후 10시 35분쯤 서울 용산구 후암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주부 박모(40) 씨가 자신의 아들(6)·딸(7)과 함께 숨져 있는 것을 남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박 씨가 숨진 장소인 안방에 딸려 있는 화장실에 번개탄이 피워져 있었고, 박 씨와 자녀들은 함께 침대에 누워있었다고 밝혔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중략)

게다가 우울증이 동반 자살로 이어질 경우 죄 없는 어린아이들까지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앞서 지난 1월 21일에도 부산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박모(40)씨가 아내 이모(37)씨와 10세, 9세, 4세 짜리 자녀들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윤대현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우울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 보통의 어머니는 자신과 자녀를 동일시하게 되고, 결국 동반 자살로 이어질 수 있어 특히 경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명수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은 “우울증에 걸려도 의미 있는 치료를 받는 경우는 15%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헤럴드경제)=『유명대학 교수의 부인이 극심한 우울증을 이기지 못하고 두 자녀와 함께 동반자살해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1일 후암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주부 P(40·주부)씨가 집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아들 C(6) 군, 딸 C(7) 양와 함께 동반 자살한 것을 남편 C(41)씨가 발견해 신고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전날 오후 1시께 경기도 소재 모 대학 교수인 남편 C씨가 학교 도서관에 책을 빌리러 간 사이 집안의 모든 문과 창문을 걸어 잠그고 천데이프로 문틈 사이를 밀봉한 채 자녀들과 함께 숨져 있었다.

이날 오후 10시 35분께 집에 돌아온 C씨가 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타살의 흔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P씨는 지난 2년간 극심한 우울증을 앓아왔다는 가족들의 진술에 따라 P씨가 자녀들과 함께 동반자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P씨는 최근 우울증 증세가 심해져 가족의 의해 강제 입원했다가 지난해 11월 말 퇴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최근까지 소설을 집필해 왔으며 2년 전에는 대입 강사로도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시신을 부검하는 한편 주택 인근 CCTV도 확인할 계획이다.』

2. 위 기사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들은 현직 대학교수 부인으로 수년간 우울증을 앓아온 여성이 6세·7세인 아들·딸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다. 이들이 숨진 장소는 안방이며, 안방 옆에 딸려 있는 화장실에 번개탄이 타고 있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부인이 자살을 하면서 두 자녀도 함께 숨지도록 했다는 것

이 경찰의 판단이다.

그러면서 위 기사들은 본문과 제목에서 <동반자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같은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숨진 두 자녀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어머니의 의사에 따라 죽음에 이르렀으며 이에 따라 이들 자녀의 경우, ‘자살’ 이라기보다는 ‘타살’의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위 기사는 본문이나 제목에서 <동반자살>이라는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신문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④항(자살 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2012-1037 신문윤리강령 위반 헤럴드경제 발행인 유 병 창

<주문>

헤럴드경제 2012년 2월 16일자 1면 「왜? 가족동반자살 한국서만 급증」 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치한다.

<이유>

1. 헤럴드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엄마 어디 가는 거야?” “음, 소풍 가는 거야...”

아이에게 소풍을 간다고 말한 부모는 인적이 드문 숲속으로 향한다. 철썩철썩 들리는 파도소리. 아무것도 모르는 꼬마아이는 파도소리에 맞춰 콧노래를 부른다. “랄랄랄라...” 차 안의 말없는 아빠는 어린 아들이 마실 우유에 넣을 약을 뺀고, 엄마는 아들이 지쳐 잠들 수 있도록 산책을 하며 노래를 부른다. 아버지는 비장하고 매서운 표정으로 자동차에 배기가스를 집어넣는다. 그리고 이들은 차문을 모두 닫고 눈을 감는다.

영화 ‘소풍’의 내용이다. 사업실패를 이유로 일가족이 함께 목숨을 끊는 가

족동반자살을 다룬 영화다. 영화 같은 현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가족동반자살이 급증 추세다. 자살은 지난 1997년 IMF 이후 크게 늘어 많은 연구·분석이 이뤄졌지만 최근 눈에 띄는 현상은 단독 자살이 아닌 집단, 특히 '가족동반자살'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2000년대 들어 한국사회에서 새롭게 보여지는 현상이다. ▶관련기사 6면

하지만 현재 국내에는 가족동반자살 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공식통계가 없다. 이 때문에 헤럴드경제가 직접 연간 가족동반자살 건수를 조사했다. 조사는 매년 언론에서 보도된 가족동반자살 사례를 집계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1996년부터 5년 간격으로 2011년까지 분석했다. 사망 여부에 관계없이 두 명 이상의 가족이 자살을 시도한 경우를 기준으로 잡았다.

조사결과, 가족동반자살 건수는 2000년대 들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MF사태 이전인 1996년 10건이었던 가족동반자살 건수는 2001년 9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다 2000년대 중반부터 급증했다. 2006년 가족동반자살 건수는 33건으로 5년 새 4배 가까이 폭증했다. 이는 계속 증가해 2011년에는 37건으로 늘었다. 2월 중순인 올해에만 벌써 가족동반자살은 5건이나 발생했다.

가족동반자살 방법은 질식사, 투신자살, 방화 등으로 다양했으나 자살 유형은 부모가 10세 이하 자녀와 함께 목숨을 끊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 대부분 생활고와 빚, 우울증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가족동반자살이 유독 한국사회에서만 두드러지는 현상이라고 입을 모은다. 그들은 한국의 사회·문화·경제적 특징에서 그 원인을 찾았다. 사회·문화적 특징으로는 사회적 안전망 부재와 강한 가족주의, 가부장 문화가 지적됐다. 자녀에 대한 과도한 부모의 자아투영에 따른 자녀와의 자아혼돈도 심리적 요인으로 분석됐다. 극심해지는 사회양극화는 이런 한국인들을 가족동반자살로 이어지게 하는 촉발제와 가속제가 되고 있다.

갈수록 늘어나는 가족동반자살을 줄이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는 물론, 사회 안전망 확충과 의식의 전환이 절실하다. 심상용 상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가족들 당사자에게만 가족보호의 책임을 전가하는 현 사회 시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현 건국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아이는 부모 때문에 삶을 빼앗긴 것”이라며 “가족동반자살도 ‘타살’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왜? 가족동반자살 한국서만 급증

‘엄마 어디 가는 거야?’ ‘음, 소풍 가는 거야...’ 아이에게 소풍을 간다고 말한 부모는 인적이 드문 숲속으로 향한다. 칙칙하게 들리는 피도소리. 아무것도 모르는 꼬마아이는 피도소리에 맞춰 꽃노래를 부른다. ‘탈탈탈라...’ 차인의 말없는 아비는 어린 아들이 마실 우유에 넣을 약을 넣고, 엄마는 아들이 지쳐 잠들 수 있도록 산책을 하며 노래를 부른다. 아버지는 비장하고 배서는 표정으로 자동차에 배기가스를 집어넣는다. 그리고 이들은 차문을 모두 닫고 눈을 감는다.



영화 ‘소풍’의 내용이다. 사업실패를 이유로 일가족이 함께 목숨을 끊는 가족동반자살을 다룬 영화다. 영화 같은 현상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가족동반자살이 급증 추세다. 자살은 지난 1997년 IMF 이후 크게 늘어 많은 연구·분석이 이뤄졌지만 최근 눈에 띄는 현상은 단독 자살이 아닌 집단, 특히 가족동반자살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2000년대 들어 한국사회에서 새롭게 보여지는 현상이다.

▶관련기사 6편

하지만 현재 국내에는 가족동반자살 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공식통계가 없다. 이 때문에 헤럴드경제가 직접 연간 가족동반자살 건수를 조사했다. 조사는 매년 언론에서 보도된 가족동반자살 사례를 집계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1996년부터 5년 간격으로 2011년까지 분석했다. 사망 여부에 관계없이 두 명 이상의 가족이 자살을 시도한 경우를 기준으로 잡았다.

조사결과, 가족동반자살 건수는 2000년대 들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MF사태 이전인 1996년 10건이었던 가족동반자살 건수는 2001년 9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다 2000년대 중반

본지 지난 15년통계 분석 2006년 33건·작년 37건 환란前보다 거의 4배급증 올해에만도 벌써 5건...

가족주의 강한 사회문화 양극화 따른 생활고 등 원인 10세 이하 자녀와 극한 선택

부터 급증했다. 2006년 가족동반자살 건수는 33건으로 5년 새 4배 가까이 폭증했다. 이는 계속 증가해 2011년에는 37건으로 늘었다. 2월 중순인 올해에만 벌써 가족동반자살은 5건이나 발생했다. 가족동반자살 방법은 질식사, 투신자살, 방화 등으로 다양했으나 자살 유형은 부모가 10세 이하 자녀

와 함께 목숨을 끊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 대부분 생활고와 빚, 우울증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가족동반자살이 유독 한국사회에서만 두드러지는 현상이라고 입을 모은다. 그들은 한국의 사회·문화·경제적 특징에서 그 원인을 찾았다. 사회 문화적 특징으로는 사회적 안전망 부재와 강한 가족주의, 가부장 문화가 지적됐다. 자녀에 대한 과도한 부모의 자아투영에 따른 자녀와의 자아혼란도 심리적 요인으로 분석했다. 극심해지는 사회양극화는 이런 한국인들을 가족동반자살로 이어지게 하는 촉발제와 가속제가 되고 있다.

값수록 늘어나는 가족동반자살을 줄이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는 물론, 사회 안전망 확충과 의식의 전환이 절실하다. 심상용 상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가족들 당사자에게만 가족보호의 책임을 전가하는 현 사회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현 건국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아이는 부모 때문에 삶을 빼앗긴 것”이라며 “가족동반자살도 ‘타살’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혜진·이지용 기자/hjh6386@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한국에 가족동반자살이 많다’는 주제의 1면 머릿기사로 본문과 제목 모두 <가족 동반자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이 기사에서 말하는 동반자살이란 일가족이 함께 자살하는 사례를 말하고 있지만 실상 이러한 사례에서 자녀들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모의 의사에 따라 죽음을 당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들 자녀의 처지에서 본다면, 기사 본문(<“가족동반자살도 ‘타살’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에서도 밝혔듯이 ‘자살’이라기보다는 ‘타살’이라는 표현이 오히려 타당하다. 자녀들로서는 원치 않았던, 타의에 의한 죽음인데도 신문이 ‘동반자살’이라고 표현한다면 이는 자녀들의 생명권을 무시하는 것과 다름없다.

따라서 위 기사는 신문윤리강령 제2조 「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 「범죄보도와 인권존중」 ④항(자살 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